| 현불 논단 |

출가, 시대 트렌드 맞춰야



정운 스님
동국대 강사

강사 스님과 불자들과 대화 시
'출가자 부재'가 가장 큰 이슈
삼보 중 가장 중요한 것 '승보'
불보, 법보 지탱한 존재기 때문

즐길 문화가 많아진 현대 사회
출가자 감소, 시대 변화 따른 것
시류에 맞춰 승가교육 이뤄져야
재가 포교사 육성 · 활용 추진을

교육 관련 강사 스님들이나 불자들과 대화를 하면, 자주 이슈화된 주제가 '출가자 부재'이다. 필자는 승려 기본교육기관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지라 '승가'나 '출가자'라는 단어에 민감하다. 출가자 부재는 불교의 위축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10년 전부터 출가자가 감소했는데, 작년에 특히 더 심각했다.

근자에 강의할 때, 삼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청중에게 물어본다. '불법승 삼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필자의 대답은 지금부터 하려고 한다.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데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여러 원인이 있다. 불교가 지나치게 학문적인 데다 밀교화된 점, 인도 종교는 모두 카스트 계급을 인정하는데 불교만 이 제도를 거부한 점, 승려의 사유재산 문제 등으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졌다. 또 8세기 이후부터 13세기까지 회교도 침입으로 사찰이 파괴당하고 승려가 살해된 점이다. 인도불교가 사라진 큰 요인은 회교로 인해 승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또, 스리랑카도 승려가 완전히 사라진 적이 있었다.

기원전 2세기에 마힌다 장로가 입국하면서 스리랑카 불교가 시작됐다. 적어도 천년 이상을 존속했는데, 10세기에 인도에서 무력 침입하면서 승려들이 살해당함으로서 불교 교단이 완전히 사라졌다. 수십여년 지나 위자야바후(1055~1110)왕이 새 왕조를 세우고, 불교 승단을 정립했다. 스리랑카 왕은 미얀마의 황제에게 사신을 보내어 승려를 초청하고, 청년들에게 출가를 장려하면서 다시 승가가 부활했다.

앞에서 필자가 의문을 던졌던 삼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은 바로 '승보'이다. 승보인 승가는 불보와 법보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존재들이다. 안타깝게도 출가자는 매년 감소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옛날 고대에는 인생을 4주기로 나누어 바라문이나 왕족들의 출가는 일상 문화였다. 신라시대나 고려시대 때만해도 왕자 출신 승려들이 많았다. 이런 원인에는 〈법화경〉이나 〈유마경〉 등 대승경전에 왕족 출가가 등장하면서 엘리트 문화적인 기류를 형성했던 것으로 본다.

당나라 때, 과거시험 보러 가는 유생들이 '선불장(選佛場, 부처에게 선택되는 것)'이라는 단어만 듣고도 인생길을 바꿔 출가했다. 그 대표가 단하 천연(739~824)과 방거사(정식 출가자 아님)이다. 또 마조의 제자인 오설 영묵(747~818)도 과거시험 보러가는 도중, 선불장이라는 말에 출가했다. 중세 때까지 동아시아에서 불교는 고급 문화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고, 이와 동반해 다수의 출가자가 배출됐다. 고대에는 우리나라나 중국의 사찰 대중이 4~500명이었다. 필자가 출가할 때만해도 한 해 출가자가 500여명이었다.

출가는 옛날 다양한 문화가 없을 때에 르네상스를 누렸다. 물론 출가자 부재는 불교만이 아니다. 특히 올해 가톨릭 신부들도 공부하는 교육기관에 기하급수적으로 줄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다. 이제 과거 이야기는 접고, 미래의 대안을 찾아보자.

출가자 부재는 시대적인 문화 흐름 속에 있다. 현대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가 광범위하게 발달된 시대이다. 즉 출가자 부재는 '문화적인 변화'라고 본다. 군대도 군인들이 폰을 허용하는 시대로 변화됐다. 옛날 상황에 고착해 출가자를 교육시켜서는 안된다고 본다.

현 시대 문화 기류에 발맞춰 승려 교육이 되어야 하며, 현대적인 방식이나 삶이 도입돼야 한다. 승려가 부족하면, 재가 포교사라도 교육을 활성화하여 각 사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 어떨까? 어떤 방식으로든 부처님 법이 흘러야 한다는 점! 간절한 마음이다.

社 說

인도 분황사, 한국불교 상징 거듭나길

조계종이 부처님 성지 인도 부다가야에 건립한 분황사가 한국불자들의 마음에 벽찬 환희심을 전하고 있다. 그간 부처님 성도지인 부다가야에는 마하보디 사원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 사찰 220여 개가 운영돼 왔지만, 한국불자들이 인도 성지 순례에서 참배할 한국사찰은 사실상 전무했다. 이런 상황에서 늦게나마 한국사찰이, 그것도 마하보디대탑에서 직선거리 300m 위치에 건립됐다는 소식에 불자들의 관심이 높다.

분황사 대웅보전의 가장 한국다운 빼어난 면모, 그리고 그곳에 봉안된 삼존불의 모습도 아름답기 그지없다. 앞으로 한국불교 위상을 드높이며 한국불교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모이는 이유다. 분황사는 또 인도를 방문하는 한국불자들의 순례와 수행의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불자들이 부처님 성지를 참배하기 전후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함께한다. 여기에 전국비구니회와 백천문화재단의 원력으로 의료사각지대에 처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필 보건소도 건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의미 또한 남다르다.

분황사 건립은 한국 불자들의 십시일반 모연으로 성사됐다. 조계종 제36대 집행부 핵심사업인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첫 번째 결실이라는 점도 적지 않은 감동이다. 통도사 청화문도회가 부지를 제공했고 설매 · 연취보살이 거액을 희사한 것을 시작으로 많은 불자들이 불사에 원력을 보탰다.

그렇기에 분황사가 부처님 성도지에서 한국불교의 상징으로 우뚝 서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것이다. 지속적이고 원만한 운영을 통해 인도를 성지순례한 한국불자라면 누구나 분황사를 참배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날이 발전하길 발원한다.

사부대중 의지 확인한 전북불교회의

전북불교의 향후 100년을 위해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전북불교 백년대계 정책기획단(단장 평상)이 지난 5월 21일 전주 혁신도시 금산사 전법도량 수현사에서 '전북불교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원탁회의' 첫 모임을 가진 것이다. 사부대중 원탁회의는 입적한 월주 스님의 뜻을 잇는 태공문도회와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가 마련했다.

그동안 본격적인 탈종교화 시대를 맞아 불교가 새로운 미래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 사부대중 원탁회의는 불자들이 힘을 모은 자리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재가자들이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격이 없는 토론을 이어갔다.

일찍이 부처님은 뭇 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발심하고 출가하고 수행하였으며, 성도하고 전법하고 열반하였다. 어느 한 순간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다.

한국불교, 종단, 사찰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어떻게 변화하고 실천해야 하는가를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가자 뿐만 재가자들도 함께 나서야 한다.

작은 역량들을 모아 이러한 의식들을 극복해야 한다. 가장 큰 장애물은 "너나 잘해"의 비협조적 태도일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울이 시냇물을, 시냇물이 강물을, 강물이 바다를 이루듯, 작지만 소중한 생각들을 모아 나가야 한다.

전북불교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원탁회의는 그런 면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앞으로 지역 곳곳에서 이러한 사부대중의 원력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가 마련되길 기원한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⑤ 드라마 '파친코'

모진 세월 견딘 모정 이야기

파친코(Pachinko)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 이민진의 장편소설인 동시에 그 소설을 극화한 애플 TV+의 드라마다.

필자는 드라마를 감명 깊게 보고, 이어서 소설을 읽었다. 원작은 1대인 양진 부부, 2대인 선자와 그녀의 애인인 고한수, 그녀의 남편인 백이삭, 3대인 선자의 아들인 백노아. 백모자수, 4대인 백솔로몬의 이야기가 시대 순으로 전개되는 반면 드라마는 선자와 백솔로몬의 이야기가 구심점이 되어서 교차시점으로 전개되면서 4대의 서사를 담고 있다.

드라마의 교차시점이라는 전개방식은 양진, 선자, 경희라는 세 여성이 격동의 근 · 현대사를 관통하면서 겪어야 했던 질곡의 삶과 선자와 그녀의 자손인 자이니치의 삶을 묘파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이어서 편집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세르지오 레오네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에 비견할 만했다.

파친코의 압권은 역사의 굴레와 비극적인 운명에 굴하지 않고 초연하게 역경을 헤쳐 나가는 여성 캐릭터들이다. 양진에서 선자로 계승되는 주요 여성 캐릭터들은 자연이 지닌 모성(母性)의 양면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빈한한 집의 딸로 태어난 양진은 팔려가듯이 언청이에 절름발이인 훈이와 결혼한다. 남편과 함께 하숙집을 운영해나가는 양진은 무당을 찾아가 "이번만큼은 아이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무당이 굿을 한 뒤 태어난 아이가 선자다. 장성한 선자는 유부남인 줄 모르고 부산의 수산물 중개상인 한수와 사랑에 빠지고 아이를 임신한다. 선자는 "허리가 뽀사지는 한이 있어도 내 아는 부족한 거 하나 없이 키울 깁니다"라며 마음을 다진다.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인 이삭을 만나 결혼하게 되고 이삭과 함께 일본 오사카로 가서 자이니치의 삶을 살아간다.

파친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견뎠다. 가족들은 견뎠다"는 내레이션으로 수미쌍관을 이룬다. 실제로 일제강점기의 조선 하층민, 일본의 자이니치들에게는 삶은 인욕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혹독한 세월이었을 것이다.

선자와 복희는 녹음(綠陰)의 나이에 헤어져서 낙엽(落葉)의 나이에 해후(邂逅)한다. 자신의 과거사를 털어놓는 복희의 모습은 처연하다 못해 숭고할 지경이다.

"세상사는 거를 꿈속에서 노는 거 모냥 사는 사람들이 있제. 마, 그런 사람들은 몬버텨낸다"는 복희의 대사는 드라마의 수미쌍관을 이루는 "그들은 견뎠다"는 내레이션과 의미상 일맥상통한다. 아이와 어른의 차이 중 하나는 견딜 줄 아는 것이다. 여기서 '견딜 줄 안다'는 것은 불교수행인 인욕(忍辱)에 해당한다. 인욕은 참는다는 의미와 함께 욕됨을 용서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인욕의 하나인 '유순인(柔順忍)'은 사람이 항상 참기를 많이 하면 저절로 조복되어서 역경이나 순경을 만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일컫고, '무생인(無生忍)'은 참고 견디어 보살의 지위에 오른 사람의 인욕행을 일컫는다. 무생인에 이르면, 인생이 무상하고 세상이 허황함을 깨닫게 되므로 성낼 일도 없고 참을 일도 없게 된다.

그러고 보면, 파친코에 등장하는 주요 여성 캐릭터들은 모진 세월을 견디면서 무상의 지혜를 깨닫고 타자에 대한 자비를 키워가는 보살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소설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대표이사 : 혜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22년 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 여행사
함께하니좋다
단체 및 개인 상담문의 02-365-7747
모두가 기다린 성지순례,
다시 함께 떠나실 준비 되셨나요?
*일정 등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라오스 6일
#핵심코스로 즐기는
#라오스의 과거와 미래
방콕/파타야 5일/6일
#화려한 랜드마크
#천혜의 자연환경
몽골/바이칼 8일
#드넓은 푸른 초원
#시베리아의 푸른 눈
캄보디아 5일
#세계문화유산
#천년의 신비
인도 9일
#상상보다 더 놀라운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8일
#신성한 유적지
#반짝이는 인도양의 나라
하와이 7일
#황금빛 태양 아래
#편안한 휴식
터키 9일
#동서양의 교착지
#찬란한 역사의 땅
이탈리아 9일
#유구한 문화유산
#반짝이는 지중해